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지 심리학에서는 외부 세계를 이미지로 구조화한 정신 표상의 존재를 상정하고 이 표상이 짜임새 있게 뭉쳐진 정도를 응집성이라고 칭한다. 정신 표상의 응집성은 독서 중 글과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높아지는데, 이는 정신 표상을 구성하는 명제들 간의 관계가 긴밀해진다는 것이다.

독자는 글을 읽을 때 응집성의 수준에 대한 목표인 응집성 기준을 조정한다. 응집성 기준이 높다는 것은 정교한 이해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고, 응집성 기준이 낮다는 것은 비교적 성긴 이해도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독자는 독서 목적, 독서 동기, 글에 대한 관심, 글과 자신의 관련성, 내용의 중요도 평정 등의 다양한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응집성 기준을 조정한다.

독자는 응집성 기준과 응집성을 비교하여 독서 방법을 선택한다. 독자가 학습을 목적으로 처음 접하는 정보가 담긴 글을 읽는다고 하자. 독자는 독서 목적에 따라 높은 응집성 기준을 설정하고 글을 읽지만, 글에 담긴 정보를 처음 접하기에 응집성이 응집성 기준에 못 미칠 것이다. 이때 독자는 응집성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독서 전략을 사용하는 독자 주도적 독서를 선택하고 글을 꼼꼼하게 읽어 응집성을 높일 것이다. 반면 독자가 같은 글을 읽더라도,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부분에서는 응집성 기준을 응집성보다 낮추게 된다. 응집성이 응집성 기준보다 높을 때 독자는 자동적 독서를 선택해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글을 가볍게 읽는다. 자동적 독서는 응집성을 높이지는 못하지만 속도가 빨라 효율적인 독서를 가능하게 한다.

독자 주도적 독서에서 독자는 ㉠ 응집성을 높이기 위한 독서 전략을 사용한다. 이러한 독서 전략에는 단어, 문장, 문단 간의 관계를 파악하며 읽기,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다시 읽기, 자신의 배경지식과 글의 내용을 연관 짓기, 글에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기, 글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찾고 활용하기 등이 있다. 독자 주도적 독서를 통하여 응집성이 높아지면 독자는 글의 내용을 오래 기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제 상황에서 글의 내용을 능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독서 동기가 달라지면 응집성 기준도 변할 수 있다.
- ② 응집성은 정신 표상이 짜임새 있게 뭉쳐진 정도이다.
- ③ 응집성은 응집성 기준과 달리 독서 중 달라질 수 있다.
- ④ 정신 표상의 응집성은 글과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높아질 수 있다.
- ⑤ 독자 주도적 독서에서 독자는 자동적 독서에서와 달리 의식적으로 독서 전략을 사용한다.

2. 다음은 학생이 자신의 읽기 과정을 기록한 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달리기로 인한 무릎 부상의 예방책이 궁금해 『체대로 알고 달리자』를 읽기 시작했다. 목차를 보니 2부 ‘달리기 부상의 원인’과 3부 ‘부상을 막는 달리기 자세’가 눈에 들어왔다. ㉡ 달리기 부상의 원인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부를 집중하여 읽기 시작했다. 2부는 부상의 발생 부위와 원인을 다루고 있었는데, ㉢ 관절과 근육이 지나치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 어려웠다. 그래서 깊은 이해를 포기하고 글을 훑어 나갔다. 2부가 끝나고 3부를 읽기 시작했다. ㉣ 달리기 자세를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이 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해 읽기 속도를 조절해 천천히 읽었다. 책을 더 읽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1부 ‘달리기가 필요한 이유’도 읽었다. ㉤ 달리기와 심폐 기능의 관계를 다룬 부분은 이미 잘 알고 있어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쉽게 읽을 수 있었다. 그 이후 ㉤ 달리기가 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내용은 눈길이가 꼼꼼하게 읽었다. 달리기에 관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의미 있는 독서였다.

- ① ㉡에서는 학생이 설정한 독서 목적이 의문의 해소임을 알 수 있군.
- ② ㉢에서는 학생이 내용의 중요도를 높게 평정하였음을 알 수 있군.
- ③ ㉣에서는 학생이 내용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응집성 기준을 응집성보다 높였음을 알 수 있군.
- ④ ㉡와 ㉣에서는 학생이 내용에 대한 정교한 이해를 목표로 삼았음을 알 수 있군.
- ⑤ ㉢와 ㉤에서는 학생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응집성 기준을 응집성보다 낮추었음을 알 수 있군.

3.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생략된 내용을 밝혀내기 위해 글에 제시된 정보를 활용하였다.
- ② 글을 빠르게 읽기 위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읽지 않고 지나쳤다.
- ③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문단 간 관계를 고려하며 읽었다.
- ④ 글을 잘 이해하기 위해 이전에 들었던 수업 내용과 연관 지으며 읽었다.
- ⑤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내려 받아 참고하며 읽었다.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미학적 담론에서 천재에 대한 규정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다. 이 변화는 신이나 자연의 권위에서 벗어나 주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과 관련이 있다.

신 중심의 사고가 지배하던 중세 시대에 예술은 종교적 목적을 ㉠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고, 예술가는 독자적으로 창작 활동을 하기 어려웠다. 이후 15세기 무렵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고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 싹트면서, 탁월한 능력을 지닌 개인이 주목받기 시작하고 천재가 예술의 역사에 등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기 예술가의 임무는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천재는 자연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로 규정되었다.

자연 모방은 예술의 중심적 경향으로 18세기까지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그러나 시민 사회의 성장과 함께 예술가의 지위도 상승하면서 예술가들은 자연에 대한 단순한 재현 이상의 것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천재 개념에도 변화가 생겼다. 뒤보는 천재를 자연에서 특별한 부분을 발견하여 모방하는 존재로 보았다. 또한 뒤보는 천재의 모방은 정해진 창작 규칙이 아닌 개인 고유의 표현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즉 뒤보는 천재를 자연 모방의 테두리 안에서 독자적인 개성을 표현하는 존재로 규정한 것이다.

18세기 후반 ㉡ 칸트의 미학에서는 천재를 이미 존재하는 것을 모방하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작할 수 있는 존재로 보았다. 또한 칸트는 천재의 능력이,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소수만이 타고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칸트에 의하면 천재가 창작한 예술 작품만이 아름다운 것이며, 이는 다른 사람에게 예술에 관한 판단의 준거로 작용할 수 있는 전범이 된다. 칸트에 이르러 천재는 모방으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으로 예술 세계를 형성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19세기 들어 개인의 감정과 개성을 중시하는 낭만주의 사조가 예술의 주류를 형성하면서 낭만적 천재상이 제시되었다. 낭만주의 시대의 천재는 무의식적인 영감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작품을 창작하며, 어떤 것에도 ㉢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감정을 자유롭게 ㉣ 드러내는 존재로 규정되었다. 즉 낭만주의 시대에 들어서 천재는 종교의 예속과 모방의 의무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독창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자리잡은 것이다. 이러한 천재상은 신이나 자연의 권위에서 벗어나 독자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투영한 것으로, 이후 이어지는 시대의 천재상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다.

(나)

가다머는 이해란 무엇인가에 답하는 철학적 문제에 집중하였다. 가다머는 ‘영향사적 의식’, 즉 우리가 항상 역사적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다는 의식 안에서만 이해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는 이해의 주체와 대상이 지니는 각각의 역사적 배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다머에 따르면 역사적 배경의 차이로 인해 이해의 주체와 대상 사이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간격은 대화를 유발한다. 양자 간에 서로 물음을 던지고 답하는 대화의 과정은, 주체에게 축적된 정신적 자산 일체로서의 ‘현재의 지평’과 대상이 지닌 역사적 배경 일체로서의 ‘역사적 지평’이 융합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지평의 융합**을 가다머는 이해로 규정했으며, 지평이 융합되어도 간격은 존재하기에 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가다머에게 천재의 ㉤ 뛰어난 창작 능력을 강조하는 천재 미학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가다머는 예술 작품이 예술가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에게 있어 이해의 과정은 주체와 대상 간의 대화 과정이기에, 예술 작품의 의미는 수용자가 예술 작품을 대면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된다. 가다머는 양자 간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사건으로 보며, 이에 따르면 예술 작품의 의미는 예술가에 의해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 달라지는 과정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A] 또한 가다머는 예술과 관련한 ‘미적 무구별’을 주장하면서 천재 미학을 비판하였다. 미적 무구별이란 예술 작품을 현실로부터 분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미적 구별은 예술 작품을 외부적 맥락으로부터 독립시켜 현실과 유리된 것으로 보게 만든다. 가다머는 천재 미학이 미적 구별을 통해 예술을 역사적 삶과의 연관성에서 멀어지게 만들었고, 사회적으로 공유된 법칙의 형상화를 중시하는 창작 전통을 해체했다고 지적했다.

가다머가 예술가의 역할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가다머가 바라보는 예술가는 기교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며 현실을 모방하는 존재이다. 이때 예술가의 역할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대신 현실의 대상을 선택, 강조, 생략하는 것이다. 이런 예술가의 역할도 역사를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가다머의 입장이다.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천재 예술가의 유형을 분류하였고, (나)는 천재 미학에 대한 평가가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 ② (가)는 천재 예술가의 특성을 제시하였고, (나)는 천재 미학에서 파생한 특정 학문의 전개 양상을 검토하였다.
- ③ (가)는 천재의 예술 작품이 지닌 기능이 소실된 원인을 분석하였고, (나)는 천재 미학이 지니는 한계를 지적했다.
- ④ (가)는 천재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학자들의 관점을 언급하였고, (나)는 천재 미학의 기원에 대한 여러 학설을 비교하였다.
- ⑤ (가)는 미학적 담론에서 천재 개념의 시대적 변화를 조명하였고, (나)는 천재 미학에 대한 특정 학자의 입장을 소개하였다.

5.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중세 시대에는 종교적 목적에서 벗어난 예술 작품의 창작이 어려웠다.
- ② 뒤보는 천재를 자연의 특별한 부분을 발견하여 표현할 수 있는 존재로 규정했다.
- ③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는 예술가에게 부여된 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존재로 규정되었다.
- ④ 뒤보가 정의한 천재는 정해진 창작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성을 표현하는 존재로 평가될 수 있다.
- ⑤ 칸트는 새로운 것을 창작할 수 있는 천재가 사람들을 예술에 관한 판단의 준거로부터 자유롭게 한다고 보았다.

6. (나)의 [지평의 융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상을 현실로부터 분리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이해의 사건이다.
- ② 이해의 주체와 대상이 서로 물음을 던지고 답하는 대화의 과정에서 일어난다.
- ③ 주체와 대상의 합치를 계기로 지평의 끊임없는 갱신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④ 대상이 지닌 역사적 배경 일체와 주체에게 축적된 정신적 자산 일체의 융합을 의미한다.
- ⑤ 이해의 주체와 대상이 역사의 흐름 속에 존재한다는 의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7. [A]를 바탕으로 ㉠을 비판한다고 할 때, 그 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인이 독자적으로 예술 세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예술 작품을 둘러싼 외부적 맥락을 간과하는 처사이다.
- ② 예술 작품의 창작이 현실과 유리된 상태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것은 천재의 생득적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처사이다.
- ③ 특정 시대의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예술가의 지위가 격상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미적 무구별을 부정하는 처사이다.
- ④ 전범으로서의 예술을 주체성이 표현된 결과로 이해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구별하는 능력을 천재에게서 박탈하는 처사이다.
- ⑤ 예술 작품을 순수한 것으로 보아서 안 된다는 주장을 외면하는 것은 예술가가 형성한 세계의 고유성을 신뢰하지 않는 처사이다.

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니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니체는 예술가가 자기 욕망을 분출하는 것이 예술의 본모습이라 말하면서도, 예술가를 '내버리고, 정리하며, 수정하는 일'에 권태를 모르는 노동자'로 보았다. 그는 예술가의 탁월한 능력을 '희귀한 우연'으로 간주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하늘에서 비쳐 내리는 듯이 오는 순간적인 착안'에 의해 창작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예술가에 대한 이상화를 강화하는 것이라 보았다. 니체는 기존의 가치 체계를 부정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극한까지 실현한 존재인 초인을 이상적으로 여겼다. 이런 니체에게 아름다운 예술이 타고난 천재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은 인간의 주체성을 비하하는 것에 불과했다.

- ① 자기 욕망의 분출이 예술의 본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니체는 낭만주의 시대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술에 있어서 개인의 감정을 중시했겠군.
- ② 예술가의 탁월한 능력을 '희귀한 우연'으로 간주하는 태도를 경계하는 것으로 보아, 니체는 칸트와 달리 아름다운 예술이 선택받은 존재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판단하겠군.
- ③ '순간적인 착안'으로 작품이 창작된다는 생각이 예술가를 이상화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니체는 19세기의 예술에서와 달리 영감을 창작의 원천으로 보지 않겠군.
- ④ 예술가를 '내버리고, 정리하며, 수정하는 일'에 몰두하는 존재로 파악한 점으로 보아, 니체는 가다머와 마찬가지로 예술 창작 과정을 예술가의 노력이 수반되는 것으로 보겠군.
- ⑤ 자신의 가능성을 극한까지 실현한 존재를 이상적이라 여기는 것으로 보아, 니체는 가다머와 마찬가지로 천재 미학이 기존의 규범을 부정하려는 인간의 주체성을 비하한다고 보겠군.

9. 문맥상 ㉠ ~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달성(達成)하기
- ② ㉡: 구속(拘束)되지
- ③ ㉢: 규명(糾明)하는
- ④ ㉣: 비범(非凡)한
- ⑤ ㉤: 변화(變化)하는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법인은 일정한 목적 아래 설립되어 독립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는 법적 인격체로, 법인격의 부여 대상이 재산 자체인지 단체인지에 따라 재단 법인과 사단 법인으로 나뉜다. 또한 경제적 이익 추구 여부에 따라 영리 법인과 비영리 법인으로 나뉜다. 법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어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의 자산이 개인의 출자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자산의 소유권은 특정 개인이 아닌 법인에게 귀속된다. 다만 법인은 행위 능력이 없으므로 실제 자산의 운용은 법인의 정관*이나 법령에서 권한을 부여한 사람에 의

해 이루어진다. 이때 정해진 절차에 어긋나거나 법인의 목적과는 다르게 자산을 운용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법인의 자산이 법적 통제 아래 운용되는 것은 자율성과 책임의 균형을 통해 사회·경제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모든 법인은 자산 운용에 대한 법적 통제를 받지만 법인의 종류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장학 재단은 비영리 법인 이므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또한 **재단 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격은 자산 자체에 부여되어 있다. 다만 법인은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이사회가 설치된다. 재단 법인의 이사회는 결정권자가 아니며 주요 사항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법인의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자산인 기본 재산은 재단을 설립할 때 정관에 기재해 등기해야 하고, 이를 처분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액수를 줄이려면 반드시 관할 기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기본 재산 외의 자산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는 영리 목적이 아니라 법인의 목적 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운용 실적을 관할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법인의 종류 및 자산 운용의 원칙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주식회사와 같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상법의 적용을 함께 받기 때문에 자산 운용에 관한 법적 통제가 보다 정교하게 제도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사단 법인인 영리 법인으로, 법인격은 주식회사의 구성원 단체에 부여된다. 자산 운용의 권한은 이사회나 주주 총회, 특정 개인에게 주어지고 이들은 정해진 법령 내에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자산은 주주의 출자에 의해 형성되며 자본금, 이익 잉여금, 자본 잉여금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자본금은 주식을 발행하여 조달된 자금으로, 발행된 총 주식 수에 주식의 액면가*를 곱한 금액이다. 이는 회사의 지급 능력과 재무 안정성을 보장하는 기초 자산이므로 원칙적으로 감액이 금지된다. 이익 잉여금은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이익 중 사용되지 않고 유보된 재원으로,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행위인 배당을 통해 배당금으로 지급되거나 사업 투자, 손실 보전 등을 목적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다. 자본 잉여금은 주식 등 자본을 거래하여 얻은 이익으로 손실 보전 등의 제한된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고, 배당금으로 지급될 수 없다. 주식회사의 자산 운용은 각 항목의 특성에 따라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적자가 누적되어 이익 잉여금이나 자본 잉여금으로도 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사용하게 된다. 자본금의 감소는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므로 신중한 자산 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식회사의 자산 운용은 자산의 외부 유출 여부에 따라 실행의 요건이 다르다. 주식회사는 ㉠ 무상 증자를 실시하여 자본 잉여금이나 이익 잉여금의 일부 혹은 전부에 해당하는 만큼의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여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한다. 이는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라는 인상을 주어 주가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무상 증자를 실행하면 자산의 구조만 재편되고 자산의 총 규모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 결정만으로 실행이 가능하다. ㉡ 배당은 주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회사는 추가적인 투자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배당은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회사나

주주들의 손해를 막기 위해 이사회뿐만 아니라 주주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더 까다로운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정관: 법인의 목적, 조직, 업무 집행 따위에 관한 근본 규칙.

*액면가: 화폐나 유가 증권 따위의 표면에 적힌 가격.

10.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식회사의 법인격은 주식회사의 구성원들에게 주어진다.
- ② 재단 법인의 기본 재산은 법인을 설립할 때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
- ③ 주식회사의 자본금과 재단 법인의 기본 재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감액이 금지되어 있다.
- ④ 법인에게 주어진 자율성과 책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법인의 자산 운용은 법적으로 통제된다.
- ⑤ 법인의 자산이 법적 통제 아래 운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법인의 종류에 관계 없이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다.

11. **재단 법인**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본 재산은 법인의 설립 목적대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 ② 법인의 목적 사업을 위한 재원은 개인의 출자에 의해서만 형성될 수 있다.
- ③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자산을 절차에 따라 자유롭게 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 ④ 특정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에 법인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권리 및 의무를 대신 행사할 주체가 필요하다.
- ⑤ 원래의 목적에 맞게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 과정에서 결정은 사회·경제 공동체 전체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1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과 달리 실행 이후에도 자본금의 총량은 그대로 유지된다.
- ② ㉡은 ㉠과 달리 이사회 결정만으로는 실행될 수 없다.
- ③ ㉠과 ㉡은 모두 주주들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④ ㉠과 ㉡은 모두 상법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
- ⑤ ㉠과 ㉡은 모두 회사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1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주식회사 A는 경영 부진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어 새로운 사업 투자나 이익 분배를 위해 적립해 두었던 재원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용도가 낮아져서 주가가 하락하였다. 이사회는 현 상황에 대한 주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회사의 영업 이익을 분배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필요한 재원의 부족으로 실행을 보류하였다. 한편 A의 설립자이자 현재 대표 이사인 갑은 회사의 평판을 개선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할 당시에 자신이 출연했던 부동산을 기부하였다.

- ① A의 이사회가 배당을 실시하려는 방안의 실행을 보류한 것은 이익 잉여금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겠군.
- ② 갑에게 자산 운용의 권한이 주어진 것은 A를 설립할 당시 개인의 재산을 출연하여 주주들에 의해 법인격이 부여되었기 때문이겠군.
- ③ A의 신용도가 낮아져서 주가가 하락한 상황에서 A가 법인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본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군.
- ④ A의 이익 잉여금이 모두 소진되고, 이후 더 이상 누적된 적자를 해소할 수 없게 되면 이는 자본금의 감소로 이어져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겠군.
- ⑤ 갑이 이사회나 주주 총회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동산을 기부하였다면 법인격에 의해 부여된 독립된 권리를 행사하였더라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군.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소는 가연물, 열, 산소라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시작된다. 이후 연소가 지속되는 과정에서는 자유 라디칼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자유 라디칼은 화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입자로, 연소 과정에서는 높은 온도에 의해 가연물 분자가 쪼개지면서 생성된다. 이렇게 생성된 자유 라디칼은 주변의 다른 분자와 연쇄적으로 반응하면서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이로 인해 연소 반응의 속도가 폭발적으로 올라가 화재의 규모가 커진다. 따라서 자유 라디칼의 ㉠ 수를 통제하는 것은 연소를 억제하는 소화 과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소화 방식에는 물리적 소화 방식과 화학적 소화 방식이 있고 물리적 소화 방식은 다시 냉각소화와 질식소화로 나뉜다. 냉각소화는 물이나 액화 이산화 탄소 등의 냉각제를 화염에 분사하여 자유 라디칼의 생성에 필요한 열을 제어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단위 시간당 가연물에서 방출되는 열의 양인 열 방출률과 단위 시간당 냉각제가 제거하는 열의 양인 열 제거율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열이 제어되었다는 것은 기화 과정에서 냉각제의 열 제거율이 가연물의 열 방출률을 초과했다는 것으로, 열 방출률은 일반적으로 가연물이 천천히 연소할수록 낮은 값을 갖는다. 냉각제 분사로 ㉡ 온도가 낮아지면 가연

물에서 나온 가연성 기체와 산소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활성 분자의 수도 급감한다. 이때 화학 반응의 속도를 나타내는 반응 속도 상수는 활성 분자의 수에 정비례하므로 그 값이 급격히 감소한다. 활성 분자의 수가 줄어들어 자유 라디칼이 새롭게 생성되는 속도가 느려짐으로써 화염이 약해지는 것이다. 한편 냉각제가 기화하는 과정에서 부피가 팽창하기 때문에 주변의 산소 농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수반되며 이 역시 소화에 기여한다.

질식소화는 불활성 기체나 고체 분말을 살포하여 주변의 산소 농도를 한계 산소 농도 이하로 낮추는 방식이다. 한계 산소 농도란 연소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산소 농도를 의미하며, 가연물마다 고유의 값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가연물 일정량이 완전히 연소할 때 방출하는 열에너지의 총량인 연소열이 클수록 한계 산소 농도가 낮다. 연소 구역 내의 산소 농도가 한계 산소 농도 이하로 낮아지면 자유 라디칼 생성 반응의 빈도가 줄어 연쇄 반응이 둔화되고, 그로 인해 가연물이 방출하는 열의 양이 자연적으로 소실되는 열의 양보다 적어지는 열 균형의 붕괴가 일어나 화염이 약해진다.

화학적 소화 방식인 억제 소화는, 화염에 분사된 억제제가 높은 온도에서 분해되면서 방출한 포획제를 통해 이미 ㉢ 활동 중인 자유 라디칼을 직접 제거하는 것이다. 억제제의 종류에 따라 ㉣ 분해되는 온도는 다른데, 분자 내 결합력이 강한 억제제일수록 분해에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 포획제는 자유 라디칼과 결합하여 안정된 분자를 만들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화염이 약해진다.

배터리와 같은 특정 가연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자유 라디칼을 통제하는 방식만으로는 완전한 소화가 어렵다. 가연물 내부에서 발열 반응이 연쇄적으로 지속되는 열 폭주 현상이 일어나, 연소에 필요한 조건이 외부로부터 유입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열 폭주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냉각제를 가연물에 지속적으로 분사하여 열이 내부에 축적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내부에 열이 남은 경우 가연물의 온도가 열 폭주를 일으키는 온도 이상으로 상승하여 재발화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 충분히 지속적인 냉각이 이루어져야만 소화가 완료된다.

14.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냉각소화 중 냉각제가 기화하며 부피가 팽창하면, 가연물의 한계 산소 농도가 낮아진다.
- ② 연소 시 많은 열을 방출하는 가연물일수록, 낮은 산소 농도에서도 연소가 지속될 수 있다.
- ③ 빠르게 연소하는 가연물일수록, 냉각소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열 제거율이 더 큰 냉각제가 필요하다.
- ④ 연쇄 반응에 의해 자유 라디칼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연소 반응의 속도가 폭발적으로 올라간다.
- ⑤ 물리적 소화는 생성된 자유 라디칼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 라디칼이 새로 생성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15.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인 반응이다.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높은 온도는 ㉠ 때문에 연소와 소화에서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어.

- ① 반응 속도 상수를 낮추지만, 포획제가 작용하는 데에도 필요하기
- ② 자유 라디칼의 생성 속도를 빨라지게 하지만, 억제제를 분해하는 데에도 필요하기
- ③ 내부 발열 반응이 일어나게 하지만, 활성 분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데에도 필요하기
- ④ 연쇄 반응에 필요한 운동 에너지가 낮아지게 하지만, 포획제가 방출되는 데에도 필요하기
- ⑤ 가연물로부터 가연성 기체가 생성되게 하지만, 포획제와 자유 라디칼의 결합을 방해하는 데에도 필요하기

1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열 폭주 현상을 제어하는 소화 방식 A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시행했다. 실험에서는 억제 소화와 A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였다. 실험을 진행하며 온도는 가연물 내부에서, 자유 라디칼 농도는 가연물 외부에서 측정했다. 열 폭주에 의해 연소가 시작된 후 온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졌고, 자유 라디칼 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억제 소화를 적용하자 초기에는 자유 라디칼 농도가 급감했으나, 잠시 후 다시 급증했다. 이 과정에서 온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이후 A를 적용하자 온도가 낮아지면서 자유 라디칼 농도도 함께 감소하여 화재가 진압되었다.

- ① 화재가 진압되었으므로 A는 가연물 내부의 연쇄적 발열 반응을 제어하는 방식이었을 것이다.
- ② 실험에서 분자 내 결합력이 더 강한 억제제를 사용했다면, 억제 소화 적용 직후 자유 라디칼 농도의 감소 폭이 더 컸을 것이다.
- ③ A가 열 폭주를 일으키는 온도 이하로 가연물의 온도를 낮추지 못했다면, 내부의 온도는 다시 높아지고 재발화가 일어났을 것이다.
- ④ A를 적용하자 자유 라디칼 생성 반응이 둔화된 것은, 냉각제를 지속적으로 분사하여 가연물 내부의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 ⑤ 억제 소화 적용 이후 자유 라디칼 농도가 다시 급증한 것은, 열 폭주로 인해 가연물 내부에서 생성된 산소가 공급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17. ㉠~㉢의 문맥상 의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생성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 ② ㉡: 제거되는 열의 양이 방출되는 열의 양보다 더 많아지면
- ③ ㉢: 다른 분자와 연쇄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 ④ ㉣: 포획제가 방출되는
- ⑤ ㉤: 남은 열에 의한 열 폭주가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18~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을지로에서 노를 젓다가 잠시 멈추다.
 사라져 가는 것, 떨어져 가는 것, 시들어 가는 것들의 흘러 내림
 그것들의 부음 위에 떠서 노질을 하다.
 아아, 부질없구나.
 그물을 던지고 낚시질하여 낚것을 익혀 먹는 일
 오늘은 갑판 위에 나와 크게 느끼다.
 오늘 하루 ㉠ 집어등을 끄고 남몰래 눈물짓다.
 손이 부르도록 날마다 을지로에서 노를 젓고 저음이여 수부의 청춘을 다 바쳐 찾고자 하는 것
 삭풍 아래 떨면서 잠시 **칭계천** 쪽에 정박하다.
 헛되고 헛되도다. 무인도여
 한 잔의 술잔 속에서도 얼비치는 저 무인도를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다.
 그러나 눈보라 날리는 엄동 속에서도 나의 배는 가야 한다.
 눈을 감고서도 선명히 떠오르는 저 ㉡ **별빛**을 향하여 나는 **노질을 계속해야 한다.**

— 김종해, 「항해 일지 1 - 무인도를 위하여」 —

(나)

밝고도 어두운 것이 무엇이었던가 **명암리**에 머무는 눈길이며 길 끝이 나를 당긴다 밝고 어두운 것이 빛만이 아니다 내 안의 **셋길들 뒷길들** 명암리는 나를 부추기듯 마음의 구석까지 몽클해진다 길은 모를수록 새롭고 **새 길**은 새로워서 낯설다 낯설게 만나는 바람소리 물소리 그 소리 기막히다 새삼 놀란다 내 눈길 나에게서 멀어지지 않는다 모르는 길이 발끝까지 따라온다 나는 생의 명암을 다시 비춘다 비추다가 낯선 길 오래 바라보다 오늘도 길은 밝았다 어두웠다 하였다 다 늦은 저녁에야 마음의 능선 너머 **다른 길**에 머문다 언제나 알 수 없는 길 속의 길 **우린 헤어지고 또 만나야 한다** 밝고도 어두운 것이 빛뿐일까 소리치며 바람이 지나간다 언제부터 내 안에서 웅크린 길 명암리에 가서 풀어놓는다

— 천양희, 「길을 찾아서 4 - 명암리 길」 —

(다)

바람이 살랑거리니 바깥보다는 방 안이 한결 좋다. 밤의 방 안은 더욱이 마음에 든다. 등하에 책상을 기대앉으면 마음이 폭 가라앉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연히 사색케 한다. 등화가친이라는 말이 있거니와 등화를 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겨울밤인 듯싶다.

저녁을 치르고 일순의 산책이 있는 다음 불을 켜고 고요히 방 안에 들어앉으면 내 마음은 항상 무엇에 그렇게 주렸는지 공허한 마음이 저도 모르게 그 무엇인가를 찾기에 바쁘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찾을 수 없는 그 마음이다. 찾아질 리 없다. 허나 그것을 못 찾는 마음은 우울하기 짝이 없다. 나이 인제 사십의 고개턱에 숨이 차게 되었으니 인생의 감상 시절은 지났다고 보아도 좋으련만 내 마음은 무엇을 찾기에 그리늘 우울한지.

언제나 나는 내 마음에서 그 무엇인가를 찾다 못 찾으면 그것을 서적에서 찾으려고 애를 쓴다. 그 어떠한 책 속에는 죽히 내 공허한 마음을 채워 줄 그러한 무엇이 들어 있을 듯만 싶은 것이다. 그래서 멍하니 앉아서 생각을 더듬다가는 별떡 일

어서 서가로 달려가는 버릇이 있다.

하지만 지금 단칸 셋방의 객사인 내 집엔 서가는커녕 책조차 비치한 것이 없다. 좋거나, 나쁘거나 그저 얻을 수 있었던 몇 권의 책이 책상 위에 놓여져 있을 뿐, 마음을 끄는 책이라고는 단 한 권도 없다. 책, 지극히 책이 그림자다.

고향의 내 서재로 마음을 달린다. 여섯 층으로 된 천정을 찌르는 높다란 서가가 눈앞에 보인다. 거기에 빈틈없이 질서 있게 나란히 책들이 가득 꽂혀 있다. 그러나 그것도 팔아먹고 남은 나머지가. 그것들의 책에 구미가 동할 리는 더군다나 없다.

나는 또 장 속에 처박아 둔 2, 3의 서가를 연상해 본다. 몹시 마음이 허전하다. 한 번씩 눈을 거쳐서 보았다고 해도 내 마음을 살찌워 준 것이 그것들이었다. 그것이 이제 궁여의 일계*에서 담배 연기로 화해 버리고 빈 서가만 남았거니 하니 마음의 공허가 더욱 심절하다. 어쩐지 그 빈 서가는 내 자신인 듯도 싶게 내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듯 공허함을 느끼는 것 같은 것이 알뜰히 걸린다. 그 서가에 가득하던 천여의 부수를 다시는 채워 보지 못할까, 아득한 생각이다. 그 부수를 다시 채우기만 하면 그래도 그 속에는 내 마음의 공허도 채워질 그러한 부분이 있을 듯만 싶은데 이제 그것을 임의로 할 수 있을 여유의 생각조차 맺지 못하니 내 자신은 이제 아무렇게나 장 속에 던져둔 서가와도 같다는 생각이 들며 서글프기 짝이 없다.

그리하여 영원히 채울 길이 없는 그 서가와 같이 내 마음속에도 티끌과 거미줄만이 쌓이고 끄슬리는 가운데 나날이 낡아 빠지는 것만 같다.

밤마다 등하에 고요히 앉기만 하면 나는 마음의 공허를 이렇게 느끼고 마음의 구석구석 들어차는 티끌 속에 케케묵어가는 나라는 인간의 존재를 내다보고는 어이없이 웃어 보곤 한다.

- 계용묵, 「방서한」 -

* 궁여의 일계: 궁한 나머지 생각다 못하여 짜낸 계책.

1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지시어의 반복을 통해 중심 소재를 부각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모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모두 현재형 진술을 통해 인물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④ (가), (나), (다)는 모두 어조에 변화를 주며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⑤ (가), (나), (다)는 모두 색채의 대비를 통해 환상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19.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다)의 주체인 '나'의 내면은 특정 공간과 맞물려 공간적으로 구조화된다. 주체는 내면 공간에서 이동하면서 자아와 삶에 대한 성찰과 탐색을 수행하며, 주체의 움직임에서 발견되는 특성은 내면의 성찰과 탐색이 지닌 특성에 대응한다.

- ① (가)에서 주체의 내면 공간은 '을지로', '청계천'과 같은 현실 공간과 맞물리는 수상 공간으로, (다)에서 주체의 내면은 '서가'를 중심으로 한 공간으로 구조화되어 제시된다.
- ② (나)에서 '명암리'라는 공간에 주목한 주체는 '새길들 뒷길들'을 포함한 내면을 의식하고 지명이 떠올리게 하는 의미와 관련된 내면의 탐색을 수행한다.
- ③ (가)의 '노를 젓다가 잠시 멈추'는 행위와 (나)의 '새 길'을 만나고 '다른 길'에 머무르는 움직임은, 내면의 탐색이 지속과 정지를 포함하는 과정임을 시사한다.
- ④ '노질을 계속해야 한다'는 (가)의 주체의 진술과 '우린 헤어지고 또 만나야 한다'는 (나)의 주체의 진술은, 내면 성찰과 탐색의 당위성을 드러낸다.
- ⑤ (다)에서 '단칸 셋방의 객사'로부터 '고향의 내 서재'로 마음을 달리는 것은, 대조적인 두 공간 사이의 움직임을 통해 주체의 내면 탐색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음을 드러낸다.

20.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을 끈 후에 느낀 삶에 대한 회한은 눈을 감고서도 뚜렷하게 보이는 ㉡을 인식함으로써 깊어진다.
- ② ㉠을 끄고 마주한 일상의 무상함에 대한 인식은 ㉡이 나타내는 지향에 대한 선명한 자각으로 귀결된다.
- ③ ㉠을 끄으로써 촉발된 삶의 고통은 시련 속에서도 현재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으로 인해 강화된다.
- ④ ㉠을 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불안감은 ㉡을 향해 도달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이어지면서 사라진다.
- ⑤ ㉠이 꺼지면서 생긴 삶에 대한 의지는 ㉡이 안내하는 이상향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꺾인다.

21. (나)의 시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빛'은 '밝고 어두운 것'으로 인식되어 밝음과 그 이면의 어둠을 함께 지닌 것으로 제시된다.
- ② '빛'에 이어 '생의 명암'에 주목한 화자는 '길은 밝았다 어두웠다 하였다'고 하며 밝음과 어둠이 교차하는 삶에 대한 인식을 표현한다.
- ③ '낮설게 만'난 것들에서 느낀 경이로움은 화자로 하여금 내면의 '모르는 길'을 의식하게 한다.
- ④ '저녁'의 시간은 '언제나 알 수 없'으리라는 회의를 유발하면서 '길 속의 길'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게 한다.
- ⑤ '언제부터 내 안에서 웅크린 길'을 '풀어놓는' 것은 내면의 어둠을 주목하게 된 화자의 모습을 드러낸다.

22. 다음은 학생이 (다)를 읽고 작성한 감상문의 일부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업 시간에 「방서한」을 읽었는데, 책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을 보여 주는 작품임을 알 수 있었다. ㉠ 글쓴이는 자신이 인생의 감상적인 시기가 지난 나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우울함을 느끼고 있음을 고백한다. 우울함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 글쓴이는 이를 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글쓴이는 현재 자신의 우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책이 없다며 깊은 공허함을 느끼는데, ㉢ 이는 궁핍함을 해결하기 위해 갖고 있던 책을 처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 서가에 책을 다시 채워 넣기 시작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현재 상황을 벗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며 좌절한다. 결국 ㉤ 글쓴이는 비어 버린 서가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자신을 티끌 속에 남아 가는 존재로 인식하며 자조하는 모습을 보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새 물도 썩은 듯이 물에 잠겼던 어항 벽은 파아란 물이끼가 돌아 있었다. 역한 냄새는 단지 썩은 고기 새끼에서만 풍기는 것이 아니고 이 어항 속 물 전체에서 나는 것인지도 몰랐다. 청년은 어항을 들어 죽은 금붕어들을 물과 함께 밖에서 내 쫓아 버렸다. 그러나 그냥 냄새가 났다. 혹은 이 파아란 물이끼가 붙은 어항 자체가 썩은 금붕어들처럼 역한 냄새를 풍기는지 몰랐다. 청년은 들고 있던 어항을 그대로 뜯을 향해 던지고 말았다. 그래도 냄새가 났다. 문을 전부 열어젖혔다. 그래도 냄새는 쉽사리 가실 것 같지 않았다. ㉠ 다른 냄새로 이 방 안을 채우리라. 무얼로? 그렇지! 담뱃내로! 할아버지의 담뱃내로!

청년은 윗목에 놓여 있는 낡은 함으로 갔다. 뚜껑을 여니가 함 속에서는 먼저 할아버지의 냄새가 풍겨 나왔다. 할아버지의 냄새. 저녁과 함께 있는 냄새. 지금도 저녁때다. 이맘때로부터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술 냄새며, 께는 자주 피시던 담배 냄새. 어서 할아버지의 대를 찾자. 청년은 손을 넣어 함 속 각색 잔가구들을 헤치기 시작했다. 손에 거치적거리는 형겼 조각이 있다. ㉡ 꺼내 보니 청사단령의 한 자락이었다. 주영과 함께 곤전에서 하사가 있었다는 이 청사단령. 그리고 주영과 함께 몇 차례 화재를 겪는 사이 주영 구슬 알은 한 알도 상하지 않은 대신, 이것만은 지금 청년으로서의 앞쪽의 한 부분인지 뒤쪽의 한 부분인지조차 분간이 안 되는 한 조각만 남은 청사단령. 이 한 조각의 옛 옷도 그새 더 물이 낡은 듯했다. 다시 함 속을 뒤지는 청년의 손에 닿은 것은 주영 구슬궤미였다. 이도 그새 구슬을 뺀 끈과 함께 구슬 알들이 더 퇴색한 것 같았다.

다음에 담뱃대인 줄 알고 꺼내 드니 붓이었다. 붓두껍을 빼고, 청년은 일전에 그림의 담뱃대를 실물의 담뱃대처럼 착각을 일으킨 것같이 이 할아버지가 쓰시던 큰 붓을 할아버지의 상투인 듯 착각됨을 어찌할 수 없었다. 살쩍빚으로 언제나 반반히 썩어 올리시던 할아버지의 상투. ㉢ 그럴 적마다 신체발부는 수지부모니 불감혜손이니라를 외지 않을 수 없었던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의 머리채를 떨굴 때 느낀 섬뜩함은 신체발부

의 어느 한 부분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 온 몸뚱이가 높은 데서 한순간 떨어지는 듯한 섬뜩함이었다. 그런 섬뜩함이 자기 손수 자른 자신의 상투가 떨어질 때 아버지한테도 느껴졌을까. 이 섬뜩함만은 모르고 돌아가신 할아버지. 세상 떠나시는 날까지 반반히 썩어 올려졌던 할아버지의 상투. 그러면서도 언제나 몇 오락 머리카락이 날리던 할아버지의 상투. 지금 이 붓도 오랫동안 먹과 할아버지의 침을 먹지 못한 탓일까, 털이 일어서 있었다. ㉣ 청년은 전에 할아버지가 하시던 대로 붓을 입술 새에 넣어 침으로 끝을 세워 가지고 도로 두껍에 꽂아 함 속 깊이 넣었다.

담뱃대는 담배쌈지와 함께 있었다. 쌈지의 담배를 대통에 눌러 담았다. 불을 붙였다. ㉤ 한 모금 깊이 빨아 내뿜었다. 그리고 눈을 감고 담뱃대를 맡아 보았다. 할아버지의 빨고 내뿜던 담뱃대와 똑같지가 않다. 또 빨아 내뿜는다. 아무래도 다르다. 빨고 내뿜는 데서 달라지는가 보다. 담뱃모금을 빨 때마다 큰 목줄띠가 한 번 움직이고, 그것을 삼킬 때 다시 한번 목줄띠가 크게 움직이고, ㉥ 그리고 나서 이따금 눈여겨보는 청년에게는 사뭇 오랜 것처럼 느껴진 뒤에야 서서히 코로 연기를 내뿜으시던 할아버지. 청년이 어렸을 때 몰래 담배를 붙여 할아버지처럼 삼켰다 사례들려 혼난 일이 있는, 그 독하게 쓴 담배를 한결같이 오래 삼키곤 하시던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만 해도 담배를 찾는 눈치시기에 대에 담배를 담아 물려 드렸더니, 여전히 속 깊이 빨아 삼키다가 종내 한 대를 다 못 피우시고 대를 입에서 떨어뜨리며 운명하신 할아버지. 청년은 몇 번을 빨아봐도 할아버지처럼 담배를 못 삼켰고 할아버지처럼 내뿜을 수도 없었다. 그러나 아까의 고약한 냄새만은 없어졌다. 그리고 어느새 할아버지가 앉아 계실 때처럼 저녁이 깃들어 왔다. 잔잔한 조수처럼 밀리어 들어오는 저녁 그늘. 청년은 조용히 담뱃대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저녁 그늘] 속에서 어두워 가는 청사단령의 조각과 희미한 주영 구슬 알들과 담뱃대를 내려다 보았다. 그러나 오늘은 청년의 눈에 눈물이 어리지는 않았다.

(중략)

청년은 지금 마신 술 때문만이 아닌 흥분으로 남도 사내의 얼굴 가까이로 자기의 얼굴을 가져가며, 노형 상투는 언제 자르셨소? 했다. 남도 사내는 이 당돌하고 무례스러운 물음을 하는 청년을 한순간 못마땅한 듯이 바라보고 있었으나 곧 빨개진 얼굴에 이번에는 또 단념하고 마는 듯한 미소를 띠었다. 흡사 늙은이의 미소였다. 노형 손수 자르셨소, 누구한테 잘라 달랬소? 상투가 떨어질 때 어떻습디까 맘이? 그냥 남도 사내는 늙은이의 미소를 띠고만 있었다. 청년은 어느새 주머니에서 주영 구슬을 꺼내고 있었다. 그리고 청년은 구슬궤미를 남도 사내 앞에 들어 보이며, 이게 뭔지 아우? 노형이야 이게 뭔지 아시겠지요? 그제서야 남도 사내가, ㉦ 이게 주영 구슬 아녘니까, 하고 부르짖듯 했다. 예 맞았쎄다, 이 구슬이 우리 십 대조, 정 꼭 에누리 없이 십 대조웨다, 그 십 대조 할아버지께서 곤전에서 하사받은 갓끈에 매달렸든 구슬이웨다, 그 할아버지께서 태부를 지내셨는데 그때 왕세자를 가르치신 공이 많으시다 구 청사단령과 함께 곤전에서 하사한 갓끈이지요, 끈은 제 끈 아니웨다마는 이 구슬만은 지금까지지두 이르게 한 알두 상하지 않구 있쎄다, 했다. 남도 사내는 어떤 흥분으로 해 더한층 빨개진 얼굴을 해가지고 청년의 손에서 구슬궤미를 조심스러이 받아 들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남도 사내의 손이 가늘게 떨렸는가 하자 그만 구슬궤미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구슬궤미는 시멘트 바닥

에 떨어지면서 끈이 끊어져 구슬 알들이 사면으로 흩어졌다. 남도 사내가 허리를 굽히고 돌아가며 구슬 알을 줍기 시작했다. 같이 허리를 구부리고 남도 사내가 줍는 구슬 알을 받아 드는 청년은 구슬 알들이 깨지지 않고 그냥 온전함에 그만 소리를 내어 웃기 시작했다. 그리고 청년은 웃음 사이사이, 아 너무 웃었더니 눈물이 다 난다, 눈물이 다 난다, 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사실 청년의 눈에는 눈물이 꺾어 있었다. 그러다가 청년은 무심코 구슬을 주워 주는 남도 사내를 보고, 노형은 웃지두 않았는데 웬 눈물이요? 했다. 남도 사내의 눈에도 어느새 물기가 어려 있었다. 청년은 그늘 속에 희미하게 빛나는 온전한 구슬 알들을 남도 사내에게서 받아 들고는 그냥 **눈물 섞인 웃음을** 웃곤 웃곤 하였다.

- 황순원, 「그늘」 -

* 신체발부는 수지부모니 불감혜손이니라: '몸 전체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 감히 훼손하여 상하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소학언해』의 한 구절.

23. ㉠~㉣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인물의 의식을 독백의 형태로 서술하고 있다.
- ② ㉡: 인물이 알고 있는 대상의 내력을 부가하여 서술하고 있다.
- ③ ㉢: 초점화된 인물의 관점에서 회상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④ ㉣: 지각의 주체를 밝혀 서술자가 지각의 주체임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 인용 부호를 사용하지 않은 발화를 통해 인물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다.

24. ㉠와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와 ㉡는 모두 사물과의 감각적 연결을 통해 인물의 존재감을 느끼는 행위이다.
- ② ㉠와 ㉡는 모두 기존 경험에 대한 성찰을 통해 새로운 발견을 유도하는 행위이다.
- ③ ㉠와 ㉡는 모두 사물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행해지던 행위이다.
- ④ ㉠는 인물에 대한 선입견에서 비롯된 행위이고, ㉡는 예기치 못했던 결과로 이어지는 행위이다.
- ⑤ ㉠는 순간의 상황에 대처하려는 무의식적 행위이고, ㉡는 특정한 목적에 의한 의도적 행위이다.

25. 「저녁 그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의 잔상을 아우르는 배경이다.
- ② 부정적 전망을 강화하는 조건이다.
- ③ 과거의 기억을 흐리게 하는 계기이다.
- ④ 상황 변화의 기점을 드러내는 표지이다.
- ⑤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돕는 매개이다.

2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1942년에 발표된 「그늘」은 시대의 격변을 마주한 당대 젊은이들의 혼란과 불안을 '청년'의 모습을 통해 드러낸다. 청년은 정체된 상황을 의식하고 이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익숙한 과거를 표상하는 사물이나 인물에 의지하려 한다. 이때 청년의 행위는 이러한 대응의 효과에 대한 회의와 불안 등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이 반영된 것이다.

- ① 청년이 '역한 냄새'를 풍기는 어항을 '뜯을 향해 던지'는 행동은, 자신의 정체된 상황을 극복해야 할 필요성을 의식했음을 암시하는 것이로군.
- ② 청년이 '냄새는 쉽사리 가실 것 같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윗목에 놓여 있는 낡은 함으로' 향하는 것은, 익숙한 과거에 의지하려는 것이로군.
- ③ '청사단령'과 '구슬 알들'이 각각 '더 물이 낡은 듯'하고 '더 퇴색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과거에 의지하는 대응 방식이 점차 효과를 발휘하지 않게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로군.
- ④ 경험의 유사성을 확인하기 위해 던진 '노형이야 이게 뭔지 아시겠지요?'라는 질문은, 남도 사내에 대한 의구심이 투영된 것이로군.
- ⑤ 끈이 끊어져 흩어진 구슬 알들을 보고 '눈물 섞인 웃음'을 보이는 것은, 의지할 대상이 내포한 불안정성에 대한 청년의 복합적인 감정이 표출된 것이로군.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을이 다 지나고 북풍이 높이 부니
 긴 하늘, 넓은 들에 저녁 눈이 날리더니
 이윽고 촌락들이 특별한 세상 되어
 ㉠ 원근의 산봉우리 백옥으로 묶었고
 시골집과 강마을을 흰 구슬로 꾸몄으니
 조물주 야단스러운 줄 이제야 다 알겠구나.
 날씨가 몹시 추워 빙설이 쌓였으니
 성 밖의 초목은 다 시들어 말랐거늘
 창밖에 심은 매화 그윽한 향기 머금었고
 고개 위에 서 있는 솔, 푸른빛이 변함없으니
 본래 지닌 절개가 날이 춥다 변할쏘냐.

앞산의 짙은 안개 햇빛을 가리니
 대숲에 뿌려진 서리 미처 못 녹았구나.
 향로를 내어 켜고 창을 닫고 앉아
 ㉠ 한 심지 맑은 향에 잡념이 그쳤으니
 가난하게 산다고 흥이야 없겠는가.
 내 건너 산 아래 황량한 마을 두세 집이
 고목 사립문에 성긴 연기 비졌으니
 어렴풋한 울타리 그림 속 같구나.
 소와 양이 내려오니 오늘도 저물었다.
 높은 석문봉에 석양이 붉었는데
 울며 가는 기러기 가는 듯 돌아오니
 형양은 아니지만 회안봉*이 여기로다.
 포구 긴 다리에 오며 가며 하는 행인
 어디를 향하여 바쁘게 가느냐.
 용산 외로운 절 언제부터 있었던가.
 ㉡ 풍경 맑은 소리 바람 섞여 지나가니
 알겠구나, 늙은 중이 예불할 때로구나.
 강가 차가운 다리에 저녁 빛이 가득하니
 까마귀는 날아들고 푸른 산이 멀리 보인다.
 시름을 못 이기어 휘파람을 길게 불고
 긴 대에 기대어서 달빛을 기다리니
 ㉢ 심술궂은 구름이 가릴 것은 무슨 일인가.
 바람이 야단스러워 하늘을 깨끗이 쓰니
 한 조각 겨울달은 맑은 빛이 예와 같구나.
 온 산과 골짜기에 달빛이 밝으니
 단대의 늙은 술이 가지를 셀 만하다.
 성긴 주렴 다시 걷고 깊은 밤 앉았으니
 동쪽 봉에 돋은 달이 서쪽 고개 질 때까지
 처마 난간 다 비추어 잠자리에 쏘이니
 냇이 다 맑아지니 자나 깨나 잇을쏘냐.
 ㉣ 어와, 이 맑은 경치 값이 있다 하면
 적막하게 닫은 문에 내 분수로 들여오랴.
 사사로이 비추지 않음이 거짓말 아니로다.
 뗏집을 비추는 빛이 궁궐인들 다들쏘냐.
 맑은 술통 바삐 열고 큰 잔에 가득 부어
 죽엽 맑은 술을 달빛 좇아 기울이니
 표연한 흥취가 웬만하면 날겠구나.

- 신계영, 「월선현십육경가」 -

* 회안봉: 중국 형양에 있는 형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 기러기가 날아와 겨울을 보내고 봄이 오면 다시 북쪽으로 날아간다고 해서 붙은 이름.

2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사적인 인물을 호명하여 회고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부정적 세태에 대해 거리를 두어 관조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자연물이 지닌 불변성에 대비하여 인간사의 덧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④ 경물을 관찰한 바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감상을 서술하는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 ⑤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생활상을 포착하여 현실에서 겪는 삶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눈 덮인 풍광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의문형 진술을 활용하여 소박한 삶에서 느끼는 흥취를 강조하고 있다.
- ③ ㉢: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인물의 행위가 이례적인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자연 현상을 의도가 내재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⑤ ㉣: 가정적 표현을 활용하여 자신이 누리는 현재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2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월선현십육경가」의 풍광은 시간에 대한 화자의 의식과 맞물려 모습을 드러낸다. 계절의 전환, 하루의 경과와 같은 시간의 흐름에 주목하는 화자의 의식을 거쳐, 풍광의 구성 요소들은 특정 시간대의 특질에 조응하도록 배치되고 조정된다.

- ① ‘저녁 눈’이 날리는 ‘긴 하늘, 넓은 들’은 ‘가을’이 지나고 ‘북풍이 높이 부’는 계절로의 전환을 의식한 화자가 주목하게 된 자연의 풍광이다.
- ② ‘매화’와 ‘술’은 화자가 의식한 겨울의 혹독함에 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 밖의 초목’과 대조를 이루며 특정한 가치를 표상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 ③ ‘가는 듯 돌아오’는 ‘기러기’는 화자에게 붉은 ‘석양’의 시간을 의식하게 한다는 점에서 ‘석문봉’과 ‘회안봉’ 간의 유사성에 주목하게 하는 자연물이다.
- ④ 내려오는 ‘소와 양’과 다리를 오가는 ‘행인’의 움직임은 보급 자리로 회귀하는 시간으로서의 저물녘에 대한 화자의 의식이 투영된 것이다.
- ⑤ 날아드는 ‘까마귀’와 멀리 보이는 ‘푸른 산’은 ‘저녁 빛’을 의식한 화자가 자연물을 원근에 따라 대비되는 것으로 파악한 결과이다.

30. 달빛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나 깨나 잇을’ 수 없는 것으로 제시되어 화자에게 그리움의 대상으로 규정된다.
- ② ‘늙은 술’의 ‘가지를 셀’ 만큼 밝아 주변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세밀한 관찰을 유도한다.
- ③ ‘사사로이 비추지 않’는 엄밀한 존재로 인식되어 화자로 하여금 ‘주렴 다시 걷고’ 실상을 확인하게 한다.
- ④ ‘온 산과 골짜기’를 충만하게 하는 속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되어 화자로 하여금 ‘큰 잔’을 가득 채우게 한다.
- ⑤ ‘궁궐’에도 비추어 연군의 정을 환기함으로써 화자에게 ‘웬만하면’ 임금에게 닿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조정에서는 요동의 적세가 급하다고 하며 시시각각으로 왕석작의 귀환을 재촉하였다. 다급해진 구양이가 산에 올라가서 찾아보았지만 자취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여러 골짜기를 지나서 겨우 왕석작을 찾아 조정의 명을 전하였다. 왕석작은 눈썹을 찡그리며 그 자리에서 병이 위독하다는 상소문을 지어 구양이에게 맡기면서 말하였다.

“내가 오랫동안 전쟁터에 있다가 돌아와서 그런지 병이 오장에 깊이 들었네. 자네가 친히 들어가 잘 주선하여 한 달만 머물러 병을 조리하게 해 주게.”

구양이가 이 말을 끝이듣고는 급히 달려가서 상소를 받들어 올리고 모든 각로를 만나서 왕석작이 병든 일을 고하면서 눈물을 흘리니 모두 놀라서 병을 조리하라고 하고 천자는 태의와 함께 가서 간병하고 치료해 주라고 명하였다. 왕치가 함께 가려고 구양이를 불러 있는 곳을 묻는데 구양이는 진짜 병이 난 줄로만 알고 걱정하면서, 숨은 곳이 난처한 곳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왕공을 인도하여 함께 산으로 오니 오륙 일이 지났다.

이때 왕석작은 구양이를 속여 보낸 뒤로는 안채에서 나오지 않고 병이 낫다고 하면서 출입을 하지 않았다. 동전책은 하루에 두어 번씩 들어와 보았지만, 있으라고 하는 말도 가라고 하는 말도 하지 않았다. 품 안에는 기린 같은 아들이 푹푹한 말을 하고 달 같은 부인이 등불 밑에서 추운지 배고픈지 잘 살펴 섬기니, 왕석작은 마음에 흡족하여 만사를 잊었다.

하루는 동 부인이 조용히 물었다.

“나리께서 중임을 맡아 순무하시고 돌아오시면서 황제에게 임무도 보고하지 않고 군명을 중도에 저버리시니, 어찌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대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비록 병이 있다고 핑계를 대셨지만, 얼굴에 병든 기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미간에 기쁜 빛이 가득하십니다. 참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왕석작이 웃고 답하면서 **함께 돌아갈 계획**을 자세히 알려 주었다. 동예아가 다 듣고는 놀라서 말하였다.

“하늘이 첩에게 화를 내리시려나 봅니다. 제가 나리를 떠나서 하루를 천 년처럼 지내면서도 기꺼이 자취를 피한 까닭은, 몸을 보전하여 훗날을 기약하려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직언을 고하다가 황제의 노여움을 만났기에, 비록 고향으로 돌아오시기는 했어도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형편입니다. 폐하께서 총애하는 후궁이 주장하는 혼인이니, 만일 순순히 취하여서 호 씨가 나리의 부인이 된다면 당연히 두 집안이 무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호 씨를 버리고 저를 취하신다면 나리는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저는 죽지는 않더라도 집을 떠나 떠돌게 될 것입니다. 나리는 여러 번 공을 세웠으니 황제 폐하의 총애가 융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이 낫다고 참말처럼 말하셨으니, 만일 어의와 태감이 와서 고요한 산촌을 요란하게 하면 어떻게 응접할 것이며 피병 부리던 자취가 드러나면 무슨 말로 변명하시겠습니까? 나리께 누덕을 끼치게 되니 제가 무슨 낯으로 사람을 대하겠습니까? 아직은 아버님 곁에 있다가 때를 보아서 부부가 함께 늙을 기회를 도모하고자 하였는데, 어설픈 생각을 내셨습니다. 하늘이 돕지 않으시는 것이니 다시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중략 부분 줄거리] 왕석작은 황제의 명으로 황귀비의 수양딸 호 씨와 혼인하지만 동예아만을 사랑한다. 이에 화가 난 황귀비는 동예아가

원래 기녀인데 신분을 속이고 왕석작과 혼인했다고 모함한다. 이로 인해 동예아는 시비 화연과 하선, 원매와 함께 황장으로 끌려가 위기에 처하고, 왕석작은 전쟁터로 내몰리게 된다.

동예아의 자색이 경향 간에 소문이 자자하니, 으뜸 집사가 한번 구경하고자 찾아왔다. 화연이 기색을 알아채고 밤에 불러서 가만히 말하였다.

“나는 본래 동 주사 맥의 종으로 기녀가 되었는데, 외람되게도 왕 어사의 은혜를 입으면서 거짓으로 여러 해 동안 부인 노릇을 했습니다. 종적이 탄로 나는 바람에 이곳에 오게 됐지만, 이 모든 것이 제 탓이니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저기 병든 동생은 왕 어사를 따라 본가에 가려고 했지만, 나라의 명이 엄하여 왕 어사가 급히 길을 떠나는 바람에 뒤떨어졌습니다. 왕 어사가 이제 바닷가에 머무신다 하니, 만일 주선하여 쫓아가게 해 주시면 제가 어르신을 몸소 섬겨서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

집사는 원하는 바대로 되자 크게 기뻐하여 동예아와 하선, 원매 세 사람을 장막을 두른 수레에 태우고 나귀를 매어 바닷가에 두고 돌아왔다. 하선이 금과 비단을 내어서 뱃사람에게 주면서 함께 가기를 청하자, 왕석작이 병든 사람을 불러서 그 사정을 물었다. 하선이 울며 아뢰었다.

“우리 형제 세 사람은 남경에서 나무를 베어서 팔았는데, 사공에게 속아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나리의 도움을 받아 다시 고향에 가 볼까 하옵니다.”

왕석작이 불쌍히 여겨 말하였다.

“너희 사정이 그러하면 양식이 없을 것이니, 내가 양식을 주겠다.”

하선이 사례하고 나왔다. 하선이 머리털을 느슨하게 묶고 검게 칠한 얼굴에 머짐이 더덕더덕 붙어 있으니 뱃사람이 더럽게 여겨서 씻으라 하였지만, 창질이 있다고 하면서 씻지 않았다.

이때 왕석작은 또다시 환란으로 인해 이별하게 된 것을 슬퍼하면서 혹 후환이 있을까 걱정하고 있었다. **매사에 의욕**이 없어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아도 보이지 않으니, 하선이 옷을 바꾸어 입고 모습이 변한 것을 보면서도 그 정체를 깨닫지 못했다. 또 아침저녁으로 음식이 차마 목에서 내려가지 아니하니, 억지로 두어 술을 뜨는 등 마는 등 하고는 그냥 하선에게 주었다. 그러면 하선은 동예아를 가리키며 말 못하는 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하면서 음식을 먼저 드려서 먹게 한 후에 그 나머지를 원매와 함께 나누어 먹었다. 왕석작이 그 우애에 감탄하여 이들을 더욱 후대하였다.

하선은 왕석작이 형용도 초췌한 채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을 보고 동예아에게 말하였다.

“나리께서 이처럼 음식에 젓가락을 대지 않은 채 천만 가지 근심과 한을 품고 계시니 우리가 실상을 가만히 아뢰어 마음을 조금 놓으시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동예아가 말하였다.

“우리가 나리의 그림자를 쫓아서 함께 가는 것은 천박한 것이요. 만일 종적을 누설하면 형세도 편치 않을 것이고 나리의 심사만 더욱 어지럽힐 것이니, 남경에 도착한 뒤에 사정을 보아 가며 선처하겠네.”

- 작자 미상, 「낙천등운」 -

3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양이는 깊은 산속에 숨은 왕석작을 찾아내어 조정의 명을 전했다.
- ② 왕치는 왕석작이 숨은 곳이 어디인지 알면서도 구양이에게 모르는 척했다.
- ③ 동전책은 왕석작이 외출을 하지 않고 동예아와 함께 있는 곳에 매일 찾아갔다.
- ④ 하선은 왕석작의 건강 상태를 염려하여 진실을 밝히자고 동예아에게 건의했다.
- ⑤ 동예아는 자신의 종적이 누설될 경우 부정적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32.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B]에서는 모두 의도한 바를 실현하기 위해 상대를 기만하고 있다.
- ② [A]와 [B]에서는 모두 인물 간의 관계를 역전하기 위해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
- ③ [A]에서는 분란을 조장하기 위해 상황을 과장하고, [B]에서는 상황을 가정하여 상대를 설득한다.
- ④ [A]에서는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여 긴장감이 조성되고, [B]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비극적 정서가 고조된다.
- ⑤ [A]에서는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자 상대를 비난하고, [B]에서는 상대의 의중을 알아내고자 또 다른 인물을 언급한다.

33. **함께 돌아갈 계획**을 들은 동예아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의와 태감을 속여야 하는 부담을 느꼈지만 다른 방도가 없음을 인정한다.
- ② 후일을 생각하지 않는 결정이 불러올 수 있는 큰 화를 언급하며 실행을 만류한다.
- ③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의를 지키려는 왕석작의 마음에 감동한다.
- ④ 두 집안이 모두 무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황제의 총애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 ⑤ 호 씨와의 혼인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간파하여 시일이 걸리더라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낙천등운」의 주인공 왕석작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이지만, 사적인 감정에 치우쳐 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않고 공적인 의무를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동예아를 비롯한 여성 인물들은 주체적으로 상황을 판단하여 행동하고, 연대에 기반한 지략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는 등의 활약을 보여 준다.

- ① 조정에서 ‘요동의 적세’가 급함을 들어 ‘왕석작의 귀환을 재촉’하는 것에서, 왕석작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군.
- ② ‘기린 같은 아들’, ‘달 같은 부인’과 지내며 나라의 위기를 잊었다는 것에서, 왕석작이 공적인 의무보다 개인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군.
- ③ ‘군명을 중도에 저버’린 왕석작의 행위를 질책하는 것에서, 동예아가 주체적 판단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동예아와 원매를 ‘우리 형제’로 칭하며 신분과 성별을 감추고 ‘나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서, 하선이 연대에 기반한 지략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군.
- ⑤ ‘후환’을 걱정하고 ‘매사에 의욕’을 잃은 것에서, 왕석작이 하선 일행의 속임수에 넘어가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상실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십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화법과 작문)

[35 ~ 37]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입니다. 최근에 한글 서예가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는데 알고 계신가요? (대답을 듣고) 잘 모르시는군요. 한글 서예는 점과 획을 운용하는 방식을 통해 작가의 감정과 개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표현 예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글 서예의 대표적인 서체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료 1]을 제시하며) 이것은 인쇄를 목적으로 하여 국가에서 제작한 서체인 판본체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판본체는 획의 굵기를 일정하게 하면서 글자를 정사각형에 맞춰 조형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료 1]의 원편을 가리키며) 이것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일부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새로 만든 글자를 설명하려는 공적인 의도에서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아를 하나의 점으로 표현해서 백성들이 낱글자의 형태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료 1]의 오른편을 가리키며) 이것은 『석보상절』의 일부입니다. 각 자료의 원으로 두른 부분에서 서로 다른 점이 보이시나요? (대답을 듣고) 네, 맞습니다. 『석보상절』에 쓰인 아래아는 점이 아니지요. 중성자의 일부로 쓰인 아래아의 경우 글자를 쓸 때 편리하도록 짧은 획으로 바꾼 것입니다.

([자료 2]를 [자료 1]과 나란히 제시하며) 이것은 궁중에서 체계화한 서체인 궁체입니다. 이 글자들은 옆에 보이는 판본체의 글자들과는 달리 마름모나 삼각형, 혹은 세로가 긴 사각형 모양으로 조형되어 있습니다. ([자료 2]를 가리키며) 그리고 이 점선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궁체에서는 중성자의 맨 오른쪽 세로획을 기준으로 글자들을 맞추어 쓰고 있습니다. 이는 궁체에서만 보이는 특징입니다.

판본체와 궁체는 붓을 사용하는 방법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획을 긋기 시작할 때 판본체는 장봉을 활용하고 궁체는 노봉을 활용합니다. ([자료 3]을 제시하며) 위의 그림처럼 획을 그으려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시작했다가 원래 방향으로 붓을 돌려 붓끝의 흔적을 감추는 방법이 장봉입니다. 그래서 판본체는 획의 끝이 뾰족하지요. 하지만 궁체는 노봉을 활용하기 때문에 아래 그림처럼 붓끝의 흔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그은 획은 끝이 뾰족하여 날렵한 인상을 줍니다.

한글 서예의 서체들은 오늘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캘리그래피나 디지털 글꼴 등을 보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떠올려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5.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문가의 발화를 인용하여 주요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 ②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발표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 ③ 청중에게 친숙한 사례를 활용하여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④ 발표 도중 질문을 하며 청중의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⑤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36. 발표자의 자료 활용 계획 중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자료 1]	[자료 2]	[자료 3]

- ① 판본체는 획의 굵기가 일정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자료 1]을 활용해야지.
- ② 글자를 쓸 때 편리하도록 판본체의 아래아 형태가 짧은 획으로 변화된 것을 설명하기 위해 [자료 1]을 활용해야지.
- ③ 궁체가 판본체와 달리 다양한 모양으로 조형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자료 1]과 [자료 2]를 활용해야지.
- ④ 궁체가 판본체와 달리 특정 획을 기준으로 글자를 쓴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자료 2]와 [자료 3]을 활용해야지.
- ⑤ 붓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판본체와 궁체의 획의 끝 모양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자료 3]을 활용해야지.

37. <보기>에 나타난 학생들의 반응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 학생 1: 궁서체는 궁체를 본떠서 만든 디지털 글꼴이라고 알고 있어. 한글 서예의 서체를 기반으로 만든 다른 디지털 글꼴이 있는지 조사해 봐야겠어.
- 학생 2: 서예에 작가의 감정과 개성이 담길 수 있다고 해서 이를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는지 궁금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지 않아서 아쉬웠어.
- 학생 3: 판본체와 궁체는 모두 국가에서 주도하여 만든 서체라고 할 수 있구나. 그렇다면 민간에서 만들어진 서체도 있었을 것 같은데 도서관에 가서 관련 자료가 있는지 찾아봐야겠어.

- ① 학생 1은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배경지식을 떠올리고 있다.
- ② 학생 2는 발표에서 들은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학생 3은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학생 1과 학생 3은 모두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탐색을 계획하고 있다.
- ⑤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발표에서 다루면 좋았을 내용을 언급하며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38 ~ 42] (가)는 상담 동아리 학생들의 대화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 1'이 작성한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지난 시간에 우리 동아리가 편지 쓰기의 가치를 주제로 한 글을 교지에 실기로 결정했던 거 기억하지? 이와 관련하여 찾아본 자료가 있으면 이야기해 보자.

학생 2: 나는 '따뜻한 우편함'에 대한 기사를 봤어. 익명으로 자신의 고민이나 사연을 써서 '따뜻한 우편함'에 넣으면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답장을 써 준대.

학생 3: 아, 나도 그 봉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어.

학생 2: 정말? 직접 해 보니 어땠는지 궁금해. 여러 사람에게 편지 쓰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대단하네! [A]

학생 3: 편지 쓰기를 통해 누군가에게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게 참 의미 있었어. 참여해 본 사람들의 반응이 다 좋아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

학생 1: 그러면 '따뜻한 우편함'에 관한 내용을 글의 도입부에 활용하자. 다른 자료들도 이야기해 줘.

학생 2: 내가 읽은 책에서는 편지 쓰기가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고백적 글쓰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효과를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했어.

학생 3: 두 가지 측면이라는 게 편지를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 같은데 맞아?

학생 2: 비슷해. 먼저 편지 쓰기는 받는 사람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고백적 글쓰기야. 편지를 쓰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헤아려 보게 되니까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지. [B]

학생 3: 그리고 보니 나도 말다툼한 친구에게 사과하는 편지를 쓴 적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친구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

학생 2: 그랬구나. 또 편지 쓰기는 글쓴이의 자기 고백적 글쓰기이기도 해. 편지를 쓰는 과정에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내면을 돌아볼 수 있다는 거지.

학생 1: 편지는 상대방을 향한 것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구나. 편지 쓰기의 또 다른 효과에는 뭐가 있을까?

학생 3: 내가 찾은 자료에 따르면, 글쓰기에 대한 부담감을 낮추는 데에 편지 쓰기가 도움이 된대. 가까운 사람 한 명을 수신인으로 해서 편지를 쓰면 불특정 다수가 자신의 글을 읽게 된다는 부담감을 덜 수 있다고 하더라고.

학생 2: 그렇구나. 나는 상황에 따라 말보다 편지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내용을 책에서 봤어.

학생 1: 어떤 상황인지 예를 들어 설명해 줄래?

학생 2: 부탁이나 사과의 말을 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편지를 활용할 수 있대. 편지를 쓸 때 시간을 두고 깊이 생각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를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야.

학생 1: 편지 쓰기가 글쓰기나 말하기에서 느낄 수 있는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거구나.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초고를 써 볼게. 다음 시간에 검토하자.

(나)

우리 학교 인근 지하철역에 '따뜻한 우편함'이 생겼다. 털어 놓기 힘든 고민이나 사연을 익명으로 써서 '따뜻한 우편함'에 넣으면 자원봉사자가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편지를 써 준다. 이 편지를 주고받으며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잊고 지냈던 편지 쓰기의 가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한다.

편지 쓰기의 가치는 편지 쓰기의 효과에서 드러난다. 먼저 편지 쓰기는 수신인을 향한 고백적 글쓰기라는 점에서 타인과의 상호 작용 및 교감의 기회를 제공한다. 편지를 쓰면서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할 수 있고, 편지를 통해 상대방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경험을 쌓으며 공감 능력을 높일 수 있다. 한편 편지 쓰기는 자기 고백적 글쓰기이기도 하다. 편지를 쓰는 과정에서 글쓴이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내면을 돌아보기도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편지 쓰기는 글쓰기에 대한 부담감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편지는 보통 특정한 상대방에게 쓰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자신의 글을 읽게 된다는 부담감을 덜 수 있다. 그리고 편지를 쓸 때는 일상적 대화에서 주로 쓰는 말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더 편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어떤 내용을 상대방에게 말로 전달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에도 편지를 활용할 수 있다. 말하기는 즉각적인 것이지만 글쓰기는 시간을 두고 깊이 생각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글쓴이의 의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빠르고 편리하게 소통하는 데 익숙한 우리에게 편지 쓰기가 요구하는 숙고의 과정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편지를 쓰며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은 여전히 가치 있는 일이다. 오늘은 누군가에게 편지로 마음을 표현해 보면 어떨까?

38. (가)의 '학생 1'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난 시간에 논의한 사항을 언급하며 대화 참여자의 발언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② 대화 참여자의 발언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 ③ 대화 참여자의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며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 ④ 대화 참여자의 직전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 ⑤ 대화 참여자의 발언을 정리하여 요약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39. (가)의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학생 2’는 ‘학생 3’의 발화 내용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정서적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 ② [A]에서 ‘학생 3’은 ‘학생 2’의 발화에 응답하며 추가적인 정보를 덧붙이고 있다.
- ③ [B]에서 ‘학생 2’는 ‘학생 3’의 발화 내용을 긍정하며 자신이 제시한 정보를 수정하고 있다.
- ④ [B]에서 ‘학생 3’은 ‘학생 2’의 발화 중 일부를 언급하며 자신이 추측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 ⑤ [A]와 [B]에서 모두 ‘학생 3’은 ‘학생 2’의 발화 내용과 관련한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40. (가)의 대화가 (나)에 반영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에서 ‘학생 3’이 ‘따뜻한 우편함’에 관해 언급한 내용이, (나)의 1문단에서 편지 쓰기의 가치를 돌아보게 하는 사례로 제시되었다.
- ② (가)에서 ‘학생 2’가 받는 사람을 향한 고백적 글쓰기로서의 편지 쓰기에 관해 언급한 내용이, (나)의 2문단에서 공감 능력 향상에 관한 내용과 함께 제시되었다.
- ③ (가)에서 ‘학생 2’가 자기 고백적 글쓰기로서의 편지 쓰기에 관해 언급한 내용이, (나)의 2문단에서 자신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자존감 향상에 관한 내용과 함께 제시되었다.
- ④ (가)에서 ‘학생 2’가 상황에 따라 말보다 편지가 더 효과적인 이유로 언급한 내용이, (나)의 3문단에서 말하기의 특성과 대비되어 제시되었다.
- ⑤ (가)에서 ‘학생 3’이 편지 쓰기가 글쓰기에 대한 부담감을 낮출 수 있는 이유로 언급한 내용이, (나)의 3문단에서 일상적 대화에 쓰이는 말투로 편지를 썼을 때의 효과로 제시되었다.

41. (나)의 글쓰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편지 쓰기의 효과를 성격에 따라 나누어 제시하였다.
- ② 편지 쓰기의 기능에 대한 상반된 관점을 비교하였다.
- ③ 편지 쓰기의 의의를 자문자답의 방식으로 강조하였다.
- ④ 편지 쓰기를 활용한 소통의 방법을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 ⑤ 편지 쓰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시대별로 소개하였다.

42. 다음은 (나)의 4문단 초고와 그에 대한 친구의 조언이다. 친구의 조언이 (나)에 반영되었다고 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문단 초고】

빠르고 편리하게 소통하는 데 익숙한 우리에게 편지 쓰기가 요구하는 숙고의 과정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편지를 쓰는 것은 여전히 가치 있는 일이다. 오늘은 누군가에게 편지로 마음을 표현해 보면 어떨까?

【친구의 조언】

“편지 쓰기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4문단에 [A] 추가하면 어때?”

- ① 독자에게 편지 쓰기를 권유하는 내용을
- ② 상황에 따른 편지 쓰기의 형식적 특징을
- ③ 말하기와 관련하여 편지 쓰기가 지닌 효용을
- ④ 앞서 언급된 편지 쓰기의 효과에 관한 내용을
- ⑤ 독자에게 익숙한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설명을

[43~45] 다음은 작문 상황과 이를 바탕으로 학생이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보건·의료 동아리 학생이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 알리는 글을 교내 보건 소식지에 실으려 함.

【초고】

하루 종일 재채기를 하거나 코를 훌쩍이는 증상이 나타나면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증상이 특정 환경에서만 지속적으로 나타나거나 열이 없다면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알레르기 비염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인 알레르겐에 면역 체계가 과민하게 반응하여 코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많은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질환이다.

흔히 알레르기 비염을 봄이나 가을에 꽃가루 등으로 유발되는 계절성 질환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집먼지진드기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일 년 내내 증상이 지속되는 통년성 알레르기 비염을 겪는 경우도 많다. 알레르기 비염은 집중력 저하, 수면 장애 등 일상 전반에 불편을 주며, 축농증, 중이염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진단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알레르기 비염은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함께 작용해 발현된다. 알레르기 체질을 가진 사람이 특정 알레르겐에 처음 노출되면 면역 체계는 이를 위협적인 물질로 인식하고 기억하는데, 이를 ‘민감화’라고 한다. 민감화 이후 해당 알레르겐에 다시 노출되면 과민 반응으로 각종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민감화나 과민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피부나 혈액 검사를 통해 자신의 알레르겐을 정확히 파악하여 생활 환경에서 알레르겐에 노출되는 빈도를 줄이는 회피 요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침구류를 자주 세탁하거나, 꽃가루가 많은 시기에는 창문을 잘

단고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만약 알레르겐에 다시 노출되면, 약 한 시간 이내에 염증 유발 물질이 분비되는 조기 반응으로 재채기, 가려움증, 맑은 콧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후 약 4~8시간이 지나면, 알레르겐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면역 세포들이 코점막으로 몰려드는 후기 반응으로 코 막힘 증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과민 반응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항히스타민제나 비강 스테로이드제 등을 활용하는 약물 요법이 필요하다. 약물은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으므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절한 용법과 용량을 지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A]

43. 초고에 활용된 글쓰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알레르기 비염의 진행 과정과 관리 방법을 연결하여 서술하였다.
- ② 알레르기 비염의 여러 관리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서술하였다.
- ③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한 합병증을 요인에 따라 분류하여 서술하였다.
- ④ 알레르기 비염의 심각성을 글쓴이의 구체적인 경험과 함께 서술하였다.
- ⑤ 알레르기 비염이 주는 불편함을 다양한 사례별로 분석하여 서술하였다.

44. 다음은 초고에 대해 동아리 부장이 한 조언이다. 이를 반영하여 [A]를 작성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바로잡았던 2문단의 내용을 다시 언급하면서 알레르기 비염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문단을 추가하면 어때?”

- ① 알레르기 비염은 일 년 내내 일상을 흔들 수 있는 질환이다. 그러므로 알레르기 비염의 위험성을 주변에 널리 알려서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보호해야 한다.
- ② 알레르기 비염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이다. 따라서 증상을 유발하는 알레르겐을 파악하여 해당 알레르겐을 회피할 수 있는 약물을 처방받아야 한다.
- ③ 알레르기 비염은 누구에게나 흔히 나타나는 가벼운 증상이므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면 적절한 회피 요법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 ④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을 감기 증상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열이 없고 증상이 특정 환경에서만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하고 그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
- ⑤ 알레르기 비염은 특정한 계절뿐 아니라 일 년 내내 지속될 수 있는 질환이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에 기반하여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45. <보기>는 학생이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통계 자료

㉠-1. 2024년 월별 알레르기 비염 환자 수 (단위: 천 명)

㉠-2. 한국인의 주요 알레르겐 (검사 대상: 19만 6419명) (단위: %)

㉡. 신문 기사

2024년 청소년 건강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 중 알레르기 비염을 진단받은 청소년의 비율은 37.3%로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청소년들의 주 생활 공간 중 하나인 학교 환경과도 관련이 있다. 교실 내 먼지와 높은 습도는 집먼지진드기가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다. 따라서 교실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고 규칙적인 환기로 적정 습도를 유지해야 한다.

㉢. 전문가 인터뷰

“최근에는 집먼지진드기나 동물의 털, 꽃가루 등과 같은 특정 알레르겐에 효과가 있는 면역 요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낮은 농도의 알레르겐을 규칙적으로 투여해 면역 체계가 과민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면역 요법은 알레르기 비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며, 특히 약물 요법의 효과가 낮거나 부작용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① ㉡을 활용하여, 교실 내 집먼지진드기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생활 환경에서 알레르겐에 노출되는 빈도를 줄이는 회피 요법의 예시로 3문단에 추가한다.
- ② ㉢을 활용하여, 면역 체계의 과민 반응을 예방할 수 있는 면역 요법을, 알레르겐에 의한 염증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알레르기 비염 관리 방법의 하나로 4문단에 추가한다.
- ③ ㉠-1과 ㉠-2를 활용하여,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월별 추이와 주요 알레르겐에 대한 내용을, 통년성 알레르기 비염을 겪는 경우도 많다는 내용의 근거로 들어 2문단을 보강한다.
- ④ ㉠-1과 ㉡을 활용하여, 알레르기 비염을 겪는 특정 연령층의 비율을 보여 주는 통계틀, 많은 청소년들이 알레르기 비염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근거로 들어 1문단을 보강한다.
- ⑤ ㉠-2와 ㉢을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진 알레르겐에 대해 효과를 보이는 치료 방법을,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기존 관리 방법의 대안으로 4문단에 추가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언어와 매체)」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십시오.